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Child Relationship-as Perceived by the child on School Adjustment

김혜금(Hye 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as perceived by the child,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how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as perceived by the child, influence school life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300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73 boys and 127 girl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12.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hild who perceived the mother's rearing attitude to be more rational and democratic, was more adaptive in school life. 2)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hat the child perceived,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child. The child who perceive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more positively, was more adaptive in school life. 3) In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and school class, the mother's democratic rearing attitude, as perceived by the child, was found to be the most affecting factor. In relationship with the classmates and school rules,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s perceived by the child, was found to be the most affecting factor.

**주제어(Keywords)** : 어머니의 양육태도(mother's rearing attitude), 어머니-자녀관계(mother-child relationship),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 I. 서론

초등학교는 정규교육이 시작되는 곳으로 아동은 초등학교 과정에 따라 교과목별 학습을 시작하고 집단에서 학교생활 규칙을 익히며 사회화되어 간다. 아동기 초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사 및 또래와 인간관계를 맺고 학업적 성취를 이루게 되는 학교 생활적응은 중요한 아동기 발달 과제 중의 하나이다[68].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교사 및 다른 또래 학

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학교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간다[18]. 아동이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은 아동의 이후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21], 학교생활적응 실패는 학업 뿐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48].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학업 수행과 성취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적인 성취 뿐만 아니라

**Corresponding Author** : Hye 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937 Jangja-Dong, Jangan-Ku, Suwon, Gyeonggi-Do, 440-714, Korea, Tel: +82-31-249-6523, Fax: +82-31-249-6520, E-mail: khghoonba@hanmail.net

\* 본 논문은 2012년 대한가정학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거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등 학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35, 54, 59, 74], 이들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전수받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화 기능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해도 부모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현대사회로 올수록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아동은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28].

Baumrind는 성숙예의 요구,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명확성, 부모 양육성, 애정과 개입의 4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권위형, 허용형, 독재형 양육태도를 제시하였다[7, quoted in 22]. 독재형은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체벌을 하며 자녀가 순종하기를 요구하는데, 권위형은 아동에게 제시하는 제한이 명확하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허용형은 아동이 하는 대로 따르거나 일관성없는 태도를 보이며 따뜻하지만 아동에게 요구하지 않는다[8].

권위적 양육태도는 반응성은 높지만 요구성은 낮은 허용적 양육태도와 차이가 있으며 요구성은 높지만 반응성은 낮은 독재적 양육태도와 상반된다[76]. 권위적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독재적 양육태도와 유사하며, 아동에게 제한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조절하기를 기대하는 허용적 양육태도와 다르다. 독재적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부모의 요구에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아동에게 엄격하고, 지시적이며, 냉정하지만 권위적 양육태도는 따뜻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융통성있게 훈육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독재적 양육태도와 차이가 있다[45].

권위적 양육태도는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아동으로 성장하게 한다. 또한 권위형 부모는 아동이 부모의 규칙에 순응하기를 바라며, 규칙에 대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아동 중심적인 접근을 한다. 독재형 부모와 다르게 권위형 부모는 아동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항상 통제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을 허용한다. 권위형 부모는 제한을 가하고 성숙을 요구하지만 아동에게 훈육을 할 때 항상 이유를 말해준다.

독재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요구와 통제는 높지만 애정과 수용도는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며 부모의 규칙과 지시에 아동이 순응하기를 기대한다[69]. 독재형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규칙을 설명하지 않는다[60]. 독재형 부모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른 교정방법보다 매를 때리는 경우가 많다. 독재형 부모의 자녀는 사회성이 떨어지며 선도적이지 않다.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옳은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또한 아동은 호기심과 자발성이 떨어지며 관계를 맺는데 취약하고 정신적 질환을 갖기 쉽고 성장해서 그들의 부모가 죽으면 대개 안도감을 갖는다[69].

허용적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거의 기대를 하지 않으며 따뜻한 애정으로 특징지워진다. 부모는 양육적이고 수용적이지만 아동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허용형 부모는 자녀가 지신을 좋아해주기만을 바라며 아동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 준다. 허용형 부모의 자녀는 자아 통제가 부족하고 특히 또래 관계에서 주고 받는 것이 부족하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부적절한 정서 조절은 미성숙한 아동으로 자라게 하며 우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성장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려 하고 독재형 부모의 자녀와 달리 부모와 계속해서 친근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69].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권위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 긍정적인 관계와 독재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간 부정적인 관계를 밝혀왔다[6, 56]. 즉 부모 모두 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수용하고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였을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2, 15, 30, 33, 44].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 성취와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75].

부모 중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업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9, 13, 5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11], 애정적이고 민주적일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12, 13, 26, 27, 29, 39, 47, 49, 53, 62].

그런데 어머니마다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태도와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를 수 있다[80]. 우리나라에서는 Kim 외가 도시 초등학교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41], 조사 대상 어머니의 95%가 자신이 바람직한 자녀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인식하였지만 아동의 79%는 어머니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Lee는 예비유아교사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인식한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했는데[52], 어머니와 자녀간 유형별로 방임형/허용형의 양육태도의 경우 어머니와 자녀가 인식하는 양육태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태도를 방임과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한 반면 자녀는 이를 권위적인 양육

유형으로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에 의해 얻어지거나 제 삼자가 관찰한 어머니 양육태도보다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아동의 보고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8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애정적, 자율적, 민주적일 때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지만[3, 31, 36, 37, 38], 아동이 부모 양육태도를 통제적이고 간섭이 심한 부정적 양육태도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5, 34, 47]. 아동에 의해 지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보다 실제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권위형, 허용형, 독재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는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70]. 초등학교 아동은 이전 시기보다 자립심이 발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는 시기이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초등학교 아동과 어머니 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10, 16, 55]. 긍정적이고 원만한 어머니-자녀 관계는 이후 아동과 제 3자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정적인 어머니-자녀 관계로 변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아동기까지의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7, 50, 82].

어머니-자녀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나 약탈 남용, 비행 행동의 위험을 줄이며[67], 친근한 어머니-자녀 관계는 아동의 더 높은 학업성취도와 더 낮은 문제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58, 79]. 또한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어머니-자녀 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23, 24, 46, 63]. 어머니의 칭찬과 보상을 통한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고[26],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30].

어머니-자녀 관계 또한 그 자체보다 그것을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는 이후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17, 43, 50, 82],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73].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어머니-자녀 관계는 애정적, 지지적 측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 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동작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0명(남자, 173명, 여자 127명)에게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자녀 관계, 학교생활적응에 관하여 질문지로 작성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은 또래친구의 비중이 커지고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므로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학교를 찾아가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회수하였다. 296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7%) 이중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292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 (1) 어머니 양육태도 척도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도구는 Cheong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이 척도는 권위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 = 292)

Category		N (%)	Total (%)
Child	Gender	Male	155 (53.1)
		Female	137 (46.9)
Mother	Education of the mother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er	114 (39.1)
		College graduation	59 (20.2)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119 (40.7)
	Mother's occupational status	Having a job	112 (38.4)
		Not having a job	180 (61.6)
	Mother's Age (years)	over 30 - under 34	14 (4.9)
over 34 - under 39		178 (60.8)	
over 40 - under 44		91 (31.2)	
over 44 - under 49		5 (1.8)	
over 50		4 (1.3)	
Average monthly earnings	Less than 3,000,000 won	91 (31.2)	
	3,000,000 won or more	120 (41.1)	
	-Less than 4,000,000 won 4,000,000 won or more	81 (27.7)	

양육태도 10문항, 독재형 양육태도 7문항, 그리고 허용형 양육태도 5문항 총 22문항으로 되어 있다. 권위형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방임하지도 않는 유형이다. 자녀가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통제를 하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재형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든 일에 대해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태도이다. 부모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체벌이나 잔소리, 혹은 욕설을 듣기도 한다. 허용형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무조건 허용해주는 태도를 보인다. 대부분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주장 없이 자녀의 의견에 따르며 자녀가 잘못된 경우에도 자녀를 나무라고 지도하기보다는 자녀를 무조건 두둔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1점(전혀 아니다), 2점(거의 아니다), 3점(보통이다), 4점(약간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척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하위척도가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의 안면타당도를 구하고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79,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80, 맹종형 양육태도가 .75이었다.

## (2) 어머니-자녀 관계 척도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Song이 사용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72]. 문항의 내용은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어머니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나는 어머니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신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유형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별로 그렇지 않다), 3점(그런 편이다), 4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의 안면타당도를 구하고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3이었다.

##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는 Shin의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아동이 자신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71]. 이 척도는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과 조화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관계 적응(4문항), 교우관계 적응(6문항), 학교수업 적응(3문항), 학교 규칙 적응(5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유형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

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아동학 전공 교수 3인의 안면타당도를 구하고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5에서 .89의 범위였고 전체적인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살펴보면 권위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양육태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재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of perceived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N = 292)

Sub-categories	Perceived mother's rearing attitude		
	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Relationship with teacher	.27*	.01	.24*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35**	.02	.22*
School class	.37**	.04	.04
School rules	.29*	.06	.03

\*\* $p < .01$ , \* $p < .05$

2.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of perceived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N = 292)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School class	School rules
Perceived mother-child relationship	.29*	.33**	.34**	.31**

\* $p < .05$ , \*\* $p < .01$

3.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초등학교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권위형 양육태도( $\beta = .35, p < .05$ )와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 $\beta = .24, p < .05$ )가 아동의 교사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권위형 양육태도를 많이 지닌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이 어머니가 독재형 양육태도를 덜 지닌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자녀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교사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19%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권위형 양육태도( $\beta = .24, p < .05$ ),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 $\beta = .29, p < .05$ )가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권위형 양육태도를 많이 지닌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자녀 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15%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권위형 양육태도( $\beta = .28, p < .05$ )와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 $\beta = .28, p < .05$ )가 아동의 학교수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권위형 양육태도를 많이 지닌다고 인식

Table 4.

The effects of perceived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perceived mother-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N = 292)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School class		School rules	
		B	$\beta$	B	$\beta$	B	$\beta$	B	$\beta$
Perceived mother's rearing attitude	Authoritative	.36	.35*	.17	.24*	.26	.28*	.26	.27*
	Authoritarian	-.16	-.12	.02	.04	-.10	-.10	-.03	-.05
	Permissive	-.04	-.05	.00	.00	-.05	-.08	-.03	-.04
Perceived mother-child relationship		.34	.24*	.30	.29*	.34	.26*	.46	.39*
F		11.73*		16.12*		4.72*		11.46*	
수정된 R <sup>2</sup>		.19		.15		.17		.22	

\* $p < .05$ 

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자녀 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아동은 학교 수업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수업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17%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권위형 양육태도( $\beta = .27, p < .05$ )와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 관계( $\beta = .39, p < .05$ )가 아동의 학교규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가 권위형 양육태도를 많이 지닌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자녀 관계가 좋다고 느낄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변인들이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는 22%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척도로 조사한 연구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일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Yun, Cohn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으로 대할수록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 호의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백히 표현할 수 있으며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 Kim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더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한 Heo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19, 32, 40, 84].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허용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이 학교에서 교사 및 친구

들과 좋은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방임과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한 반면 자녀는 이를 민주적인 양육유형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고한 Lee의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어머니의 허용형 양육태도를 아동이 민주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2].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영역 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자녀관계를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이 감소하며 학교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Chang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그러나 어머니-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20, 35, 57, 65, 66].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아동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관계 적응에 있어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가, 학교수업 적응에 있어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권위형 양육태도가, 학교규칙 적응에 있어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자녀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학교에서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는 것



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문적 성취[30, 64, 78]와 교사-아동 관계[4, 77]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어머니가 수용적이면서 애정을 보이고 자녀의 반응에 민감할수록 아동이 사회적응을 잘 한다는 Park 외, Wood 외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 전 영역에서 영향력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Kim 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42, 61, 81]. 한편으로는 아동이 어머니-자녀 관계를 양호하게 인식할수록 아동의 교우관계가 좋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관련 변인 중 부모와의 상호작용 친밀성이 아동의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Choi 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7]. 아동이 어머니가 권위적 양육태도를 지닌다고 느낄수록 학교에서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며 학교수업에 잘 적응하고, 아동이 어머니-자녀관계를 좋다고 인식할수록 학교에서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권위적이라고 인식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양호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지지적인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Chan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9],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긍정적인 어머니-자녀관계를 강조하는 어머니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부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아동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다양화하고 5학년이나 6학년 고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상을 다양화하고 표집수를 늘려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동이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양육태도를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면접 등의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아동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자녀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1. Ahn, H. J. (1999).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 Ahn, Y. L. (199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omestic environment variables on the adation of childre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 Amato, R. R., & Fowler, F. (2002).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 703-716.
4. Barth, J. M., & Parke, R. D. (1993). Parent-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on children's transition to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39, 173-195.
5. Bascoe, S. M., Davies, P. T., Sturge-Apple, M. L., & Cummings, E. M. (2009).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289-301.
6.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2.
7.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7, 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8. Baumrind, D. (1980).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 Psychology Monographs*, 4, 1-2.
9. Chan, S. M. (2011). Social competence of elementary-school children: Relationships to maternal authoritative, supportive maternal responses and children's coping strategies.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7(4), 524-532.
10. Chang, C. J., & Yang, H. W.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2), 5-29.
11. Chartand, J. M. (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i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45, 193-202.
12. Chen, X., Chang, L., He, Y., & Liu, H. (2005).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 417-429.
  13. Chen, X., Liu, M., & Li, D. (2000).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301-419.
  14. Cheong, C. H. (2000). *A study of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5. Choi, H. L., & Kim, S. I. (2004).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youth school life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5(2), 57-92.
  16. Choi, O. H. (2007). *Effects of various ecological factors 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first-grad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17. Choi, Y. J., & Choi, S. B. (2006).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relationship and its effect on their on-line and off-line social relationship.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1(3), 115-146.
  18. Chu, H. J. (1998). *A study of affecting factors on school-life adjustment level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1, 152-162.
  20.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school and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logy*, 15, 1-18.
  21. Cowen, E. L., Hightower, A. D., Pedro-Carroll, J. L., Work, W. C., Wyman, P. A., & Haffey, W. G. (1996). *School-based prevention for children at risk: The primary mental health projec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2.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23.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 44-58.
  24.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2, 23-45.
  25.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 1055-1071.
  26. Eisenberger, R., & Cameron, J. (1996). The detrimental effects of reward: Myth or reality? *American Psychologist*, 51, 1153-1166.
  27. Fabian, H. (2000). Small steps to starting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8(2), 141-153.
  28. Fishbein, M., & Aizen, I. B. (1975).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29. Goh, E. H. (2008).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life of young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30.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al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31.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Inner resources for school achievement: Motivational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4), 508-517.
  32. Heo, S. M. (2009).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33. Hwang, H. S., & Ju, H. J. (2011). The influence of



-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 Instruction*, 11(4), 525-545.
34. Jackson, A. P., Choi, J. K., & Bentler, P. M.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ee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 30, 1399-1455.
35. Jang, Y. A., & Park, J. E. (2011). The effect of internet us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20(4), 319-331.
36. Jang, Y. A., & Park, J. H. (2008).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37. Jo, E. J. (2012). How parenting influences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term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5(1), 35-50.
38. Joussemet, M., Koestner, R., Lekes, N., & Landry, R. (2005).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utonomy support to children'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73, 1215-1236.
39.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R. (1998). Family proces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74-387.
40. Kim, J. S. (1996). *Maternal traditional-modern value,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41. Kim, J. S., & Park, J. H. (1997). A cross-sectional survey to compare the child nurturing attitude of mothers perceived by children and by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Maternal & Child Health*, 1(1), 59-77.
42. Kim, S. C., & Kwak, K. J. (2011). The mediating role of child's temperament o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On the negative reactivity of temperament.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55-171.
43. Kim, T. H., & Lee, Y. J. (2005).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on self-esteem in adolescent.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10(3), 173-193.
44. Kim, Y. A. (1997). *The effects of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45. Kordi, A., & Baharudin, R. (2010). Parenting attitude and style and its effect o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2(2), 217-222..
46. Laible, D. (2004). Mother-child discourse in two contexts: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attachment security,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979-992.
47. Lee, E. Y., & Kim, K. H.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105-119.
48. Lee, H. N., & Lee, S. (2012). The path analysis of emotional support, emotion regulation, and self-efficiency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2), 65-74.
49. Lee, J. A. (2002). *The relations among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50. Lee, J. S., & Chung, H. J. (2004). Th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ttachment with their parents, and school adjustment.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2(3), 47-61.
51. Lee, S. K., & Lee, J. Y. (1998). The effect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theoretical process mode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2), 49-64.
52. Lee, Y. L. (2005). A study on nursing attitud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Women Education & Culture*, 14, 271-290.
53. Lee, Y. L., & Lee, K. A. (2004). Individual and

-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54. Lee, Y. M., & Min, H. Y. (2004).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1-10.
55. Lim, S. K., & Lee, H. S. (2007). The effects of self-esteem,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3), 169-183.
56. Maccoby, E. E., & Martin, C. N.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2). New York: Wiley.
57.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58.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59.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19-241.
60. Olowodunoye, S. A., & Titus, O. A. (2011). Parenting styles, gender, religiosity and examination malpractices. *Gender & Behavior*, 9(2), 3941-3960.
61. Park, S.,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62. Park, Y. J. (200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hoccheon, Korea.
63.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ren Development*, 68(5), 908-923.
64. Pianta, R. C., & Harbers, K. L. (1996). Observing mother and child behavior in a problem-solving situation at school entry: Relations wit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307-322.
65.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 483-495.
66.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97-114.
67.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Vol. 3(pp. 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68.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ic*, 147, 598-611.
69. Sarta, B., & Aslam, N. (2010). Role of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parenting in home, health and 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0, 47-66.
70.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71. Shin, H. M. (2007). *The influences of children's stress-coping styles on the risk of internet gaming addiction through school-related adjust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u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72. Song, A. Y., Lim, H. J., & Wang, J. H. (2011). A study of victimization from school violenc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6, 57-83.
73. Song, Y. M. (2011). The effects of the special purpose highschool students' parent-child

- relationship, ego-resilience, and study competence on school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3), 647-669.
74.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75.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1, 508-523.
76. Steinberg, L., Mounts, N. S., Lamborn, S. D., & Dornbusch, S. M. (1991). Authorit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cross varied ecological nich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9-36.
77. Stright, A. D., Gallagher, C. G., & Kell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78. Stright, A. D., & Neitzel, C. (2003). Beyond parenting: Coparenting and children's classroom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31-40.
79. Tawana-Bandy, B. S., & Kristin, A. M. (2008).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family strength. *Child Trends*, 1-7.
80. Tein, J., Roosa, M. 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o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81. Wood, J. J., McLend, B. D., Sigman, M., Hwang, W. C., &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4, 134-151.
82. Yang, H. A., & Park, Y. Y.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3(6), 847-860.
83. Yu, H. K.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children's character, and social level of class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eon, Korea.
84. Yun, M. J. (2002).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and elementary student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of Education, Suwon, Korea.

---

접 수 일 : 2012년 3월 25일  
 심사시작일 : 2012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6일